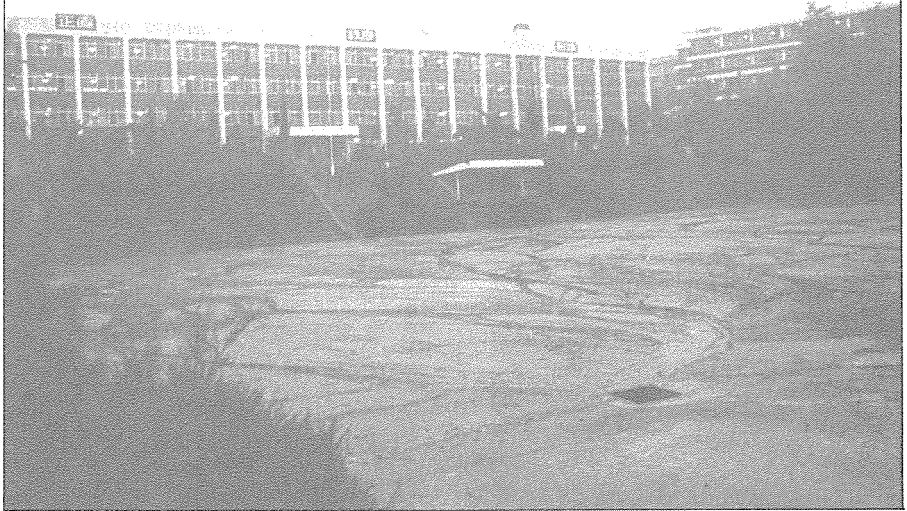


양호실 순례 ③



즐겁게 공부하는 희망의 보금자리

—서울여자고등학교 양호실을 찾아서—

가을비가 촉촉히 아스팔트위를 적셔줄때, 기자의 발걸음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소재 서울여고 양호실로 옮겨졌다.

장차 이나라의 참된 여인상을 배출해내는 서울여고.

탁트인 전경과 울창한 수풀림으로 이루어진 학교 전경이 가을이라는 사색의 계절과 꼬마속녀들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어울리는 것 같다.

입구에서 기사를 맞이해주는 김종현양호선생님. 40代 후반의 나이 보다는 30代 젊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한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보는 것 같았다. —서울여고에서는 보건교육을 어떠한 방식

으로 하고 있는지요. —

『저희 학교는 체육시간과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기생충, 성교육, 결핵등 여러가지 보건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성병교육 같은 것은 호응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보건교육은 실천할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알기만 하고 행(行)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또한 어머니교실을 통하여 학부모님들에게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자치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지요, 그러한 결과로서 금년에 저희 학교는 간염예방접종을 健協서울시지부에서 1,200여명이 검



◀ 체계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김종현
양호선생님

사를 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보건교육의 현상이 기자의 눈앞에 환하게 그려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고 김종현 양호선생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낄수가 있었다.

—년1,2회 기생충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

『기생충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꼭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요. 저희 학교경우 85년도 현재 기생충감염율이 2,320명중에서 0.22%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니되지요. 기생충감염율 0%까지는 계속되어야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 검사, 후 투약을 강조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T.V나 신문, 잡지등에서 선전만 보고 약을 먹는 것 보다는 항시 먼저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투약 했으면 해요.』

정기적인 년1, 2회 기생충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종현양호선생님. 20여년간을 양호선생님으로서 재직한 경험에서오는 노련미와 어떤 가치관을 기자는 엿볼수가 있어 한결 호뭇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청소년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시달리는 高3병에 중독된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책을 오랜 시간동안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력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또 체력장 시험때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심장마비로서 세상을 등지는 학생들도 간혹 보곤해요. 이러한 모든 것이 高3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보다는 대학이 먼저라는 압박감이 많다고 생각되나봐요. 그것은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 체크를 못한다는 말도 돼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뚜렷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高3학년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먼저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종현양호선생님. 서울여고의 代母다운 말이어서 기자역시 따뜻한 정을 느낄수가 있었다.

“우리양호선생님은 너무나도 자상해요. 항상 우리들을 친팔처럼 잘 보살펴주시지만, 피병을 부리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호되게



◀청소년 문제는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미치지 다른 학생들은 면학의 열기로 가득차 있다.

꾸지람을 하는지 그때는 무서워요”

옆에 자리를 같이한 양호반 학생이 기자에게 살짝 귀뜸을 해주면서 방긋 웃는다.

『또한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미치지, 전체적인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울여고 양호실의 자랑과 양호선생님으로 20여년간을 제직하면서 느낀점은 어떤 것이지요 —

『저희 양호실을 자랑 할 것은 없지만, 저희학교 양호실은 각종 학생들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및 보건교육 교육자료,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의 사생활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온수를 매일매일 급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변정리정돈과 위생철저에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을 저희 양호실의 자랑이라고 할수 가 있지요.』

10평 넘는 크나큰 양호실에는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된점에서 기자는 종합병원의 입원실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느낄뻔 했다. 그것은 김종현양호선생님의 깔끔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20여년간 양호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양호선생님이라면 흔히 그학교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많이해요, 학생들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간혹 알아야 하고 학교의 흐름을 알아야 하지요, 그것은 한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호선생님들의 능력활용범위가 좁다고 생각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저 학생들의 응급치료에만 국한 되어 있잖아요, 1차 보건진료요원으로 법적인 근거라도 있으면 해요, 저희 양호선생님들은 대부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판단 할수 있는 실력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쉬워요.』

23살에 양호선생님으로 첫발을 디딘 이래 현재의 김종현양호선생님, 베테랑의 양호선생님으로서 올해나이 마흔다섯살이다. 20여년간을 양호실에서 보낸 김종현양호선생님은 수만명의 서울여고 학생들의 어머니로서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임을 기자는 느끼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오일민 기자)